

일시 2004년 3월 7일(일) 낮 12시~4시 **장소** 여의도공원

주최: 96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0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지역여성연계 : 경기도여성단체연합회,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회, 울산여성단체연합회, 전북여성단체연합회



A woman with dark hair in a ponytail, wearing a light pink turtleneck, is smiling warmly while holding a young child. The child is wearing a patterned hospital gown and is looking up at the woman. They are in a hospital room, with a bed and medical equipment visible in the background. A sign on the wall in the background has Korean text, including '병원' (Hospital) and '나눔의 사랑' (Love of Giving).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재활치료 중이던 환자가 완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새로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고객과 함께 실천한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퍼지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선뜻 건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웃을 볼 때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사랑 그 속에서,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곳에,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기부문화 조성 | 아름다운 통화(*011 또는 *017 + 통화 버튼을 누르고 1번 선택), NATE 사랑의 자선냄비, 천사기금 Matching Fund, 사랑의 별
소외계층 지원 | 사랑 나눔 캠프, 소년 소녀 가장 결연 사업, 장애 청소년 정보 검색 대회, 대한학교 지원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Charity Knights
자원봉사 활동 | SK텔레콤 사회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 캠페인, Be Sunny, Be Happy!, 대형 재난 긴급구조 활동, 연말연시 사회봉사활동



한국농림협회컨설팅(KMAC) 선정
2003 한국경영대상 대상수상(서비스부문)

교육정보서비스기업, 대교

SAFE KIDS KOREA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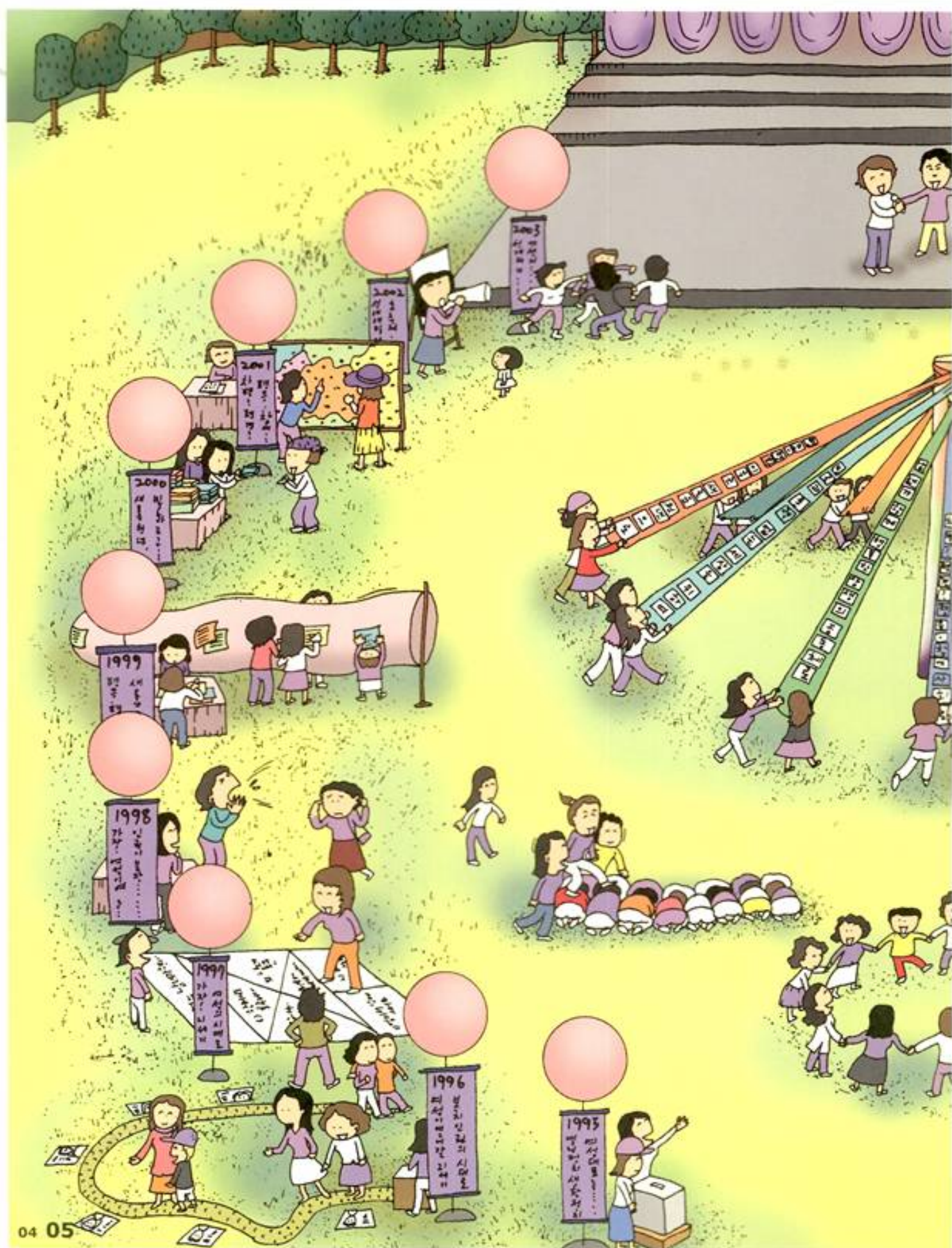
길 위에서도 맘껏 상상하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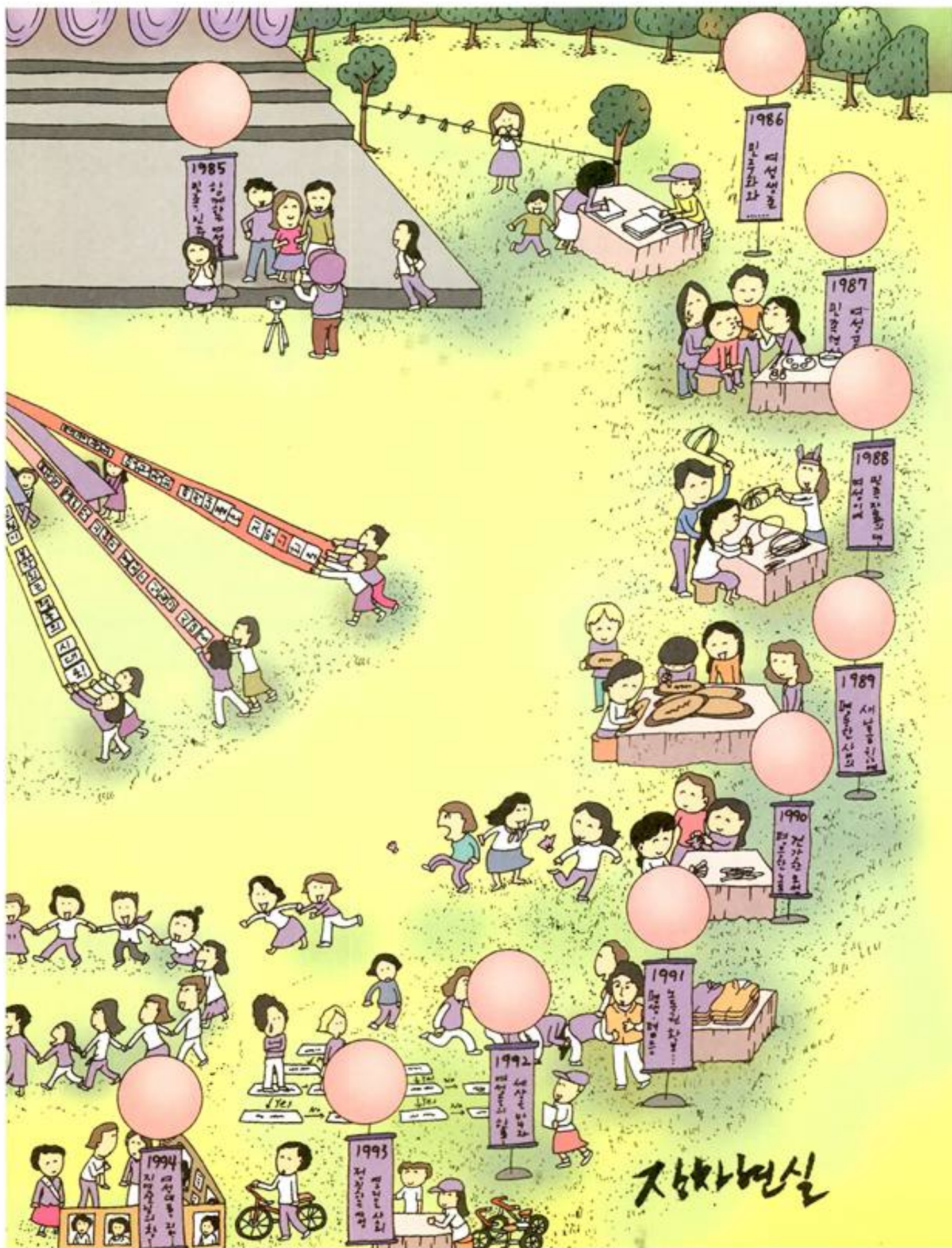
SAFE KIDS
KOREA

대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생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Safe Kids Korea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전국 500여개 지점에서 5,000여명의 어린이안전지도자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www.daekyo.co.kr

기증







"스무살의 여성대회에서 평등을 향한 스무고개 함께 넘어요~"

스무고개 중 열고개 미팅을 넘어오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예지도해 왔던 마다 스무고개를 풀이신 후, 열여섯고개로 오세요.



상생의 축제

사회 | 최광기 & 권해효

길놀이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체 '단비'

참가단체 기수입장 |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2004년 여성선언 | 여성연합 정현백·남윤인순·이강실 공동대표

내빈소개

여성권의 걸림돌 발표

여성권의 디딤돌 발표 및 디딤돌패 전달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축하공연 | BMK

정치개혁 퍼포먼스 | 참가자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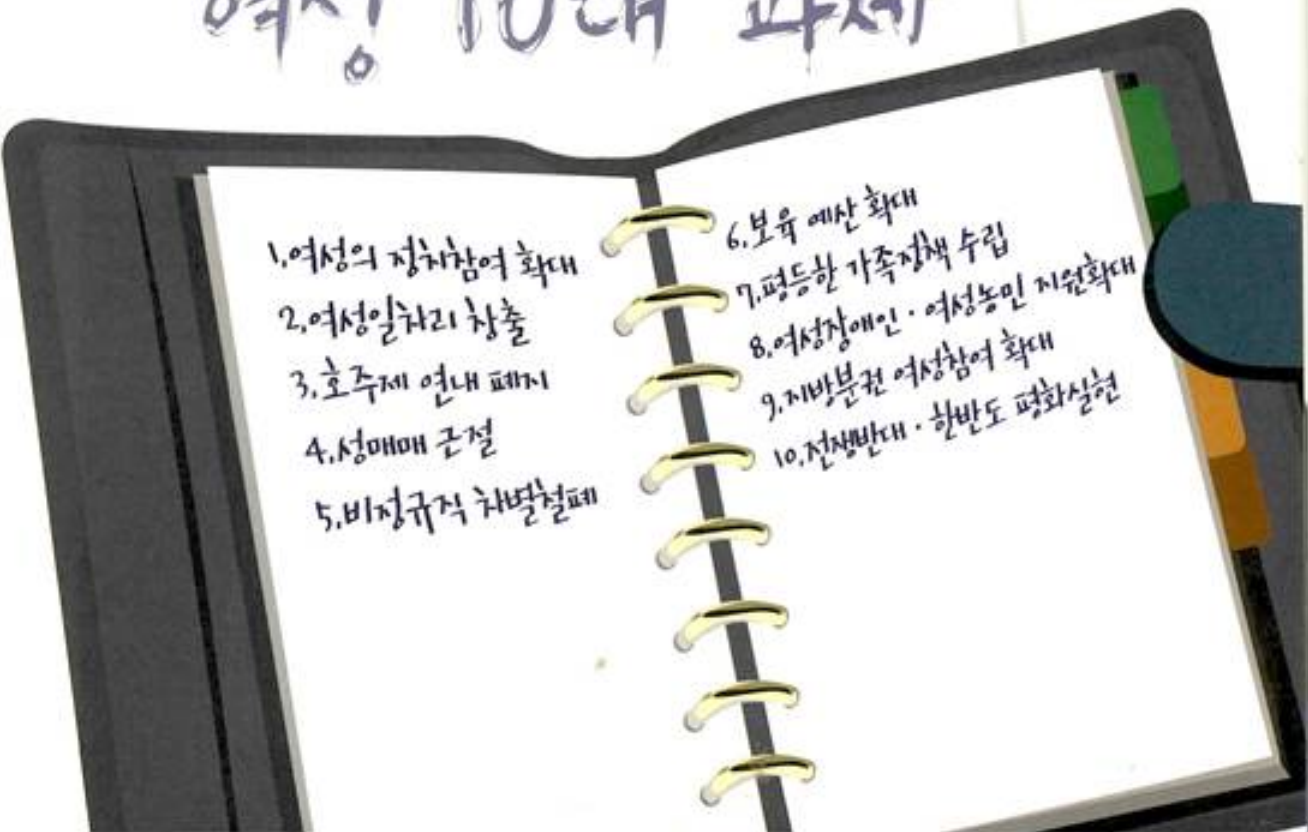
상생의 탑 퍼포먼스 및 대동놀이 | 김애영, 참가자 전체

- 08 2004 여성선언
- 10 '올해의 여성운동상' 소개
- 12 '여성권의 디딤돌 & 걸림돌' 소개
- 14 출연진 소개
- 16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연락처
- 18 도움주신 곳



2004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여성 10대 과제

- 
-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2. 여성일자리 창출
 - 3. 호주제 연내 폐지
 - 4. 성매매 근절
 - 5. 비정규직 차별철폐
 - 6. 보육 예산 확대
 - 7. 평등한 가족정책 수립
 - 8. 여성장애인·여성농민 지원확대
 - 9. 지방분권 여성참여 확대
 - 10. 전성평등·한반도 평화실현



2004 여성선언

남녀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빈곤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며 평등·평화·상생의 세상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여성,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908년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을 요구하며 릿거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여성의 날 96주기이며, 1985년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제1회 한국어 성대회를 개최한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성대회의 스무해는 사회민주화와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여성운동의 생생한 역사이며, 가정과 일터에서 성차별 없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일궈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인권, 노동, 평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가부장제 의식의 변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제 남녀평등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모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여성, 장애, 나이, 인종, 학벌,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힘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스무 계단을 발판 삼아, 새봄을 준비하는 대지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온 여성운동은 남녀가 상생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여 깨끗한 정치, 평등정치 실현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부패가 적고 민주정치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당당히 참여하여 지역주의 정당구조, 부패정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반여성적·반개혁적 16대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5.4%에 불과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17대 국회에 성평등 관점이 분명한 친여성 후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개정 정당법에 명시된대로 비례대표 중 50% 이상을 여성에게 반드시 할당하고 여성비례대표 선출도 성평등의식과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당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친여성 후보의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여성빈곤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퇴보, 환경파괴, 부의 집중과 사회적 양극화 등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자율적 시민사회를 파괴시키는 과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 등 고용불안이 일상화되고 남성의존형 가구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증대되면서 빈곤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등 가족해체 양상이 급증하면서 친족공동체가 담당해 온 위기대응 기제조차 부재하면서 여성의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중 73% 이상이 여성비정규직이며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차별받고 있어 최저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가족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종합적인 빈곤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용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 및 소외된 계층의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남녀가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를 가로막는 호주제를 연내 폐지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공약했던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2003년 한해동안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활동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거없는 부계혈통주의와 허구적 가부장권을 온존시키는 호주제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남녀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사회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딸만 있는 가구가 220만 가구에 이르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및 재혼가정이 늘어나는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여 17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호주제 폐지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4·15 총선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국회의원 후보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하고, 평등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호주제폐지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모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평등·평화·상생의 큰 바다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다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2004년 3월 7일

제20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한국여성발전재단 상임대표 김현미



한국여성발전재단 공동대표 김은연



한국여성발전재단 공동대표 이향실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

최재천 교수는 생명과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공생설’이라고 부르는 진화생물학 이론을 통해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부계혈통주의인 호주제의 생물학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세포 내에는 핵 이외에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는데, 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암수의 유전자가 공평하게 절반씩 결합하지만 핵을 제외한 세포질은 암컷이 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온전히 암컷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 즉 철저하게 암컷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전통적으로 남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족보와는 달리 생물학적인 족보는 여성의 혈통만을 기록하므로, 부계혈통주의는 생물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존재할 수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일반론을 사회생물학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호주제폐지의 정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재천 교수는 사이버 테러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호주제의 생물학적 모순을 담은 ‘호

주제의 근간이 되는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과학자의 의견’을 제출, 이것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극심한 사이버 테러에 시달리고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소신과 근거 없는 부계혈통주의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항의가 쇄도하지만, 실제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예전처럼 남성들이 가부장적 권한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장 계급장’을 떼어내면 편해지는 것이 남자들이라며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들을 설득하며 강의와 인터뷰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호주제폐지 운동가이자 이론적 대변인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성평등주의를 실천하는 실천가이자 여성주의자입니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본인이 여성학 지도교수라고 부르는 부인을 만나 실천하는 성평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말이나 행동까지 일일이 지적해주며 토론하는 부인 덕에 일상에서 성평등주의를 실천하는 실천가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교직을 잡고 있는 부인의 뒤편까지 더해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아들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가능한 먼 저녁모임을 잘 잡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여성주의자입니다.



루터나일스 사도제공

주요 약력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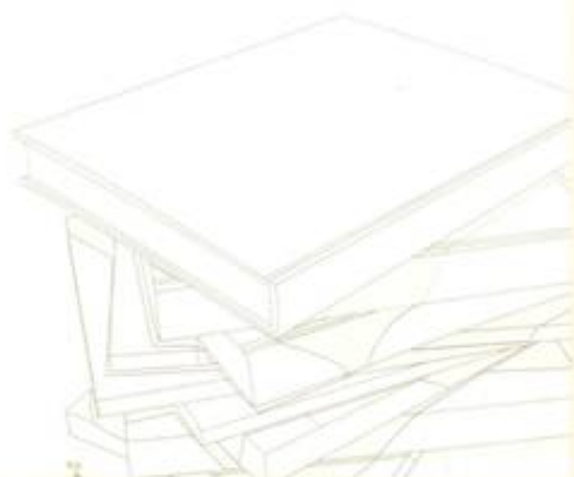
1977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 졸업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생태학 석사
1990년 미국 하버드대학 생물학 박사
(지도교수: Bert Holldobler & Edward O. Wilson)

◎ 경력

1990-92년 하버드 대학 전임강사
1992-94년 미시건 대학 조교수
1994-현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부교수
1994-현재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sect Behavior 편집위원
1996-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식지 <자연과학> 편집장
1999-현재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ology 편집고문
2001-현재 국제학술지 Evolutionary Psychology 편집위원
2001-2006 Harvard University Museum of Comparative Zoology 연구원

◎ 주요 저서

개미제국의 발견, 사이언스북스, 1999.
보전생물학, 사이언스북스, 2000.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출판, 2001.
알이 닭을 낳는다, 도요새, 2001.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궁리, 2001.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 궁리, 2002.
이것이 생물학이다 (역서), 몸과마음, 2002.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궁리 2003
열대예찬, 현대문학 2003





여성권의 디딤돌

- ◎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여성활동가들' (강인화, 김하은, 목지영, 성혜란, 오갑숙이, 오수현, 유은하, 이영화, 임영신, 전미선, 전승로, 정희영, 허혜경 총 13명)

비도덕적이고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염원을 담아, 포탄이 빗발치고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이라크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지로 날아가 목숨을 건 반전활동을 전개,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라크의 어린이들과 여성 등 민간인 피해자를 위한 난민구호사업과 의료지원 사업을 전개한 13명의 용감한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여성활동가'들은 한국여성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과 전쟁을 반대하는 열망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줌으로써, 여성반전평화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줌과 동시에, 이라크 현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으로 전달해 주고, 한국 내 평화운동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기에 여성권의 디딤돌로 선정합니다.



- ◎ 보수적인 틀 깨고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보수적이고 변화를 꺼려하는 대학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전문성과 능력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전혀 떨어지지 않음에도, 여성교수가 전무하던 서울대학교 법대의 학장으로 부임하면서, 작지 않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성을 법대 강단에 서게 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법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로 마련해준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대학사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인물이다. 특히 최근에는 1급 시각장애인을 서울법대에 입학하도록 결정하는 등 소수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대학사회 내에서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었기에 여성권의 디딤돌로 선정합니다.



- ◎ 학교비정규직 문제 사회에 알려내고 상용직화 방안 이끌어 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일동' (학교비정규직영양사지부 / 학교도서관사서지부 / 학교과학교보협보조원지부 / 학교급식지회)

급식과 도서관, 그리고 수업보조 업무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시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일용직으로 일해 온 '영양사', '조리종사원', '학교도서관사서', '학교과학교보협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조합'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상대로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공공부문, 특히 학교의 비정규직(교육부 통계 8만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지역별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개선 계획안]을 이끌어 내면서 상용직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2004년 상반기에는 학교비정규직 상용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 기대되며,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의 모범을 만들어 내었기에 여성권의 디딤돌로 선정합니다.



- ◎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지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전뜻 나서기를 꺼려하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유가족들의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해준 배금자 변호사는, 최초로 성매매 여성 유가족이 공무원과 경찰, 국가의 직무유기, 감금방조, 윤락행위방조, 유착비리 등 성매매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헌신적으로 진행, 일부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와 포주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4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성매매가 여성인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규명하여, 성매매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여 여성인권운동의 새 장을 여는데 기여하였기에 여성권의 디딤돌로 선정합니다.





여성권의 걸림돌

◎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태도로 호주제폐지에 찬물 끼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정부에서조차 '호주제폐지특별기회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개정안에 대해 단 두 차례의 논의만을 진행하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는커녕 '호주제가 폐지되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호주제 문제는 남녀평등과 아무 관계가 없다', '공산주의가 수립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족해체이다'라는 등 구시대적인 언행과 인식을 거듭 보여 줌으로써,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할 가족제도를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억압의 틀에 묶어두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주었기에 여성권의 걸림돌로 선정합니다.

◎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책임프로듀서-김현아)

'얼짱'과 '몸짱' 등 지나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방송의 책임성이 더욱 커져가는 요즘,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률이 약 80%에 달하는 케이블 방송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공영방송에 버금가고 있어, 케이블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케이블 방송사인 동아TV가 제작한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은,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외모를 바꾸어준다는 선정적인 이벤트를 통해, 여성들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외모에 대한 여성들의 콤플렉스를 이용하여 마치 성형수술을 통해 획일화된 외모가 미의 기준인양 왜곡하여,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고, 외모를 통한 여성억압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면서 방송을 성형수술광고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은 물론,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생략함으로써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방송의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여성권의 걸림돌로 선정합니다.

◎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 비하한 예정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공동체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요즘, 총신대의 임태득 목사는 신성한 채플설교 과정에서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돼"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신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은 물론, 여성의 목사안수를 당면시 여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또한 다음세대를 낳는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생리현상을 마치 열등한 인간이 갖는 기능인 것 인양, 비하함으로써, 저 출산으로 인해 다음 세대의 사회적 생산력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여성 차별적이지가 반사회적인 발언으로 여성은 물론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인간 모독을 범하였기에 여성권의 걸림돌로 선정합니다.

◎ 여성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경재 의원

전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과 의정활동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이 언행과 자질은 특히 국민들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함을 기본이나 오늘 국회의원들이 거듭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장 달지 말아야 할 최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을 향해 "남의 집 여자가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 달라고 앉아 있는 거지?"라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상식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2,3차례 반복함으로써 또 한번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이를 인권침해이자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의원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선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동료 의원들로 말리는 성희롱을 자행하여, 17대 총선 낙천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여성권의 걸림돌로 선정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출연진



권해효



최광기



BMK



한국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



함께하는 사람들



기획팀



연출 | 이해관



미술감독 | 홍은숙



촬영프로그램 기획·진행 | 공공문화개발센터 LRART, 강경호



촬영프로그램 기획·진행 | 공공문화개발센터 LRART, 이해관



기획 | 채리미영



기획 | 황금명륜



제작 지원



문화재단지원 Tel : 2264-3068 / 2268-3068

은백음향

문화재단지원 Tel : 02-742-6532



준비위원회 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여성연합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63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66-37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361-6078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657-8086
 부산여성단체연합 051-852-6648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여성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055-282-9603
 기독교여민회 02-2265-7957
 대구여성회 053-421-6758
 대전여민회 042-252-9790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4-3330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새움터 031-867-4655
 수원여성회 031-241-7530
 안양여성회 031-458-3050
 여성사회교육원 02-2278-7705
 울산여성회 052-266-7159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2069-0521
 제주여민회 064-756-726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2264-8649

포항여성회 054-284-0404

한국보육교사회 02-2275-850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505-533-3838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3011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81-3029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1-5362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부산여성회 051-852-6647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고양여성민우회 031-919-1195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김포여성민우회 031-986-6007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0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한국여성연구소 02-2273-62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서울여성의전화 02-2272-2161

서울강서양천지회 02-2605-8455

광주여성의전화 062-363-7739

대구여성의전화 053-657-8086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울산여성의전화 052-244-1555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090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3
 강릉여성의전화 033-643-1985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시흥여성의전화 031-496-9390
 안양여성의전화 031-442-5385
 김해여성의전화 055-329-6450
 창원여성의전화 055-266-3722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6
 영광여성의전화 061-353-4994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03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6
 부천여성의전화 032-328-9713
 진해여성의전화 055-546-1400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목포여성의전화 061-283-455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부산여성장애인연대 051-517-9669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광주여성장애인연대 062-676-2305
 인천여성장애인연대 032-763-8271
 경남여성장애인연대 055-242-5043
 전북여성장애인연대 063-287-8522
 충남여성장애인연대 041-577-7060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43-262-3805
 목포여성장애인연대 061-282-6523

양천구여성장애인회 02-2605-8723
 시각장애인여성회 02-564-2444
 농아인여성회 02-865-4466
 한국여성학자협의회 02-2275-7754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여성 · 시민 · 사회 · 문화 인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66-9736
 국제 엠네스티 02-730-4755
 공공문화개발센터 URART 02-336-1875
 녹색연합 02-747-8500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02-324-7486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02-392-018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02-717-9201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02-3147-150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2-734-3924
 여성문화예술기획 02-587-0590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참여연대 02-723-425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2-365-401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9-6851
 한국여성재단 02-595-6364
 한국청년연합(KYC) 02-393-1355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02-577-0601
 환경정의시민연대 02-743-4747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도움주신 곳

'3·8 여성대회'의 20주년을 맞아, 참가자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3·8 여성대회'는 많은 고마운 분들의 정성으로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페이스페인팅



수빈 아카데미

메이크업 · 방송코디전문학원

www.socbin.co.kr Tel 1588-0801

여성용 손목시계



(주)엠케이마스타

Tel 02/2633-5480

우리밀쿠키

아 낙

「아낙」여성가정생활산자활공동체

Tel 02/736-7303

허브비누



Tel 016-732-2739

영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O.S.T CD



MEDIA-MIX INCREASE
MI COMPANY

Tel 02/3448-4466

여성잡지

다문화적 다문화주의 여성잡지

herstory

Tel 02/710-0501

어린이잡지

고래가 그랬어

Tel 02/333-3075

행사장 배치도

장학나눔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1층

후원회 전화 (02)2275-7785, 7788 / 팩스 (02)2273-9539

후원회 이메일 : support@women21.or.kr

후원자 성명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우편물 받을 주소 (자택 ☐ 직장 ☐)

나머지 주소

소속 / 근무처

연락처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

Homepage :

회원구분

자동이체 후원회원 : ☐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월5만원 ☐ 월10만원

평생후원회원 : ☐ 100만원 ☐ 100만원 이상 원

가입동기

☐ 언론보도 ☐ 홈페이지방문 ☐ 강연·강좌 ☐ 행사참여 ☐ 권유 ☐ 사업 홍보물 ☐ 기타

♡ 후원자님을 추천해주신 님은길 후원자님 성함 :

후원계좌

우리은행 064-1318585-13-108

국민은행 347-25-0007-108

하나은행 388-810014-74905

예금주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금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CMS 출금이체 동의서)

후원금 출금

희망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은행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계좌로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후원금만큼 정해진 날짜에 인출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후원자님께서도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위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보내주시면

후원금 자동이체 납부신청이 됩니다. 후원금은 매월 20일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인출됩니다.

단, 무체국과 단위 농협은 금융결제원의 사정으로 CMS 방식으로 자동이체 할 수 없음을 알려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나라에서도

상쾌한 공기를 마십니다!!

...



30년 역사의
첨단 의료공학 전문 기업이 만든
“공기청정기”

풍경소리
NANO e-PLASMA SYSTEM



솔고바이오메디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림빌딩 5F

● 대리점 개설 및 구매 문의: 080-347-0202 <http://www.solco.co.kr>



"한번 무너지면
걸잡을 수 없는 피부고민"

New

피부나이, 처음에 잘 잡아야죠! 아이오페 EGCG THE FIRST

여자나이 25.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피부나이를 만났을 때, 아이오페 EGCG로 대응해 주세요.
피부나이의 원인은 현대생활의 여러 유해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피부 속 산화 때문이란 걸 아세요?
이제, 보다 적극적인 항산화 성분, EGCG로 당신을 보호하세요.
유해산소로 지친 피부를 생생하게, 활기치게.
당신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위해 처음부터 EGCG하세요.



피부의 꿈

IOPE



“세상엔 사람만 사는게 아니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벌레 하나...

땅위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있소

함께 살아야 행복한거요

사람과 자연이 둘로 나뉘어질 수 없으니

생명을 하늘처럼


Pulmuone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수품”

2003년 히트금융상품으로 선정
(매일경제, 중앙일보 외 17개 신문사 선정)



당당한 젊음이 아름답다 -

20대 **유희** 통장

자립선언 1. 청약통장으로 내집을 마련한다

(가입 2년후, 주택청약 1순위 자격부여)

자립선언 2. 군대에서도 내몸은 내가 지킨다

(최고 1억 8천만원까지 군인상해 보장, 일반상해 최고 5억원까지 보장)

●가장 자세한 내용은 영인권에 위치한 상영권자를 참조하십시오.

2004-3-2 22:08

국민은행 www.kbstar.comKB 

숲이 있는 도시로 더 많은 새들이 돌아옵니다



청둥오리, 재두루미, 쇠오리, 황조롱이, 고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겨울새들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불과 50여 종, 도시숲이 잘 조성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발견되는 270여 종에 비해 채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더 많은 새들을 날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부터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도시숲을 가꾸고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어 살기 좋은 도시, 지금 우리가 가꾸는 도시숲에서 시작됩니다.